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추천하는 연말 재테크 상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 가능한 절세형 금융상품은 4가지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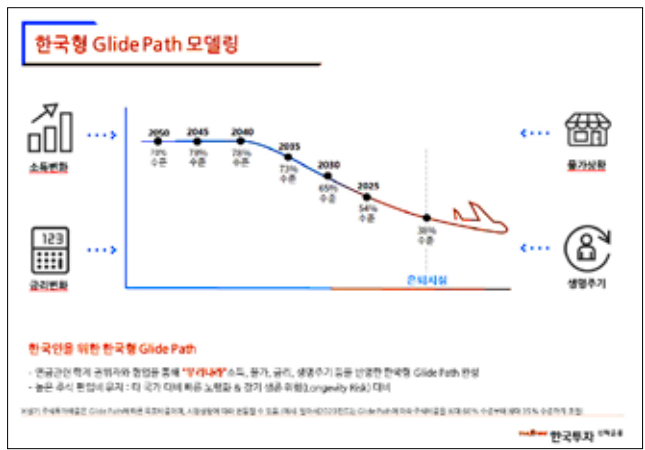
이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산 납입금액 중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또는 근로소득금액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보다 소득금액이 클 경우에는 13.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115만5천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사적 연금 상품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0~70%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실질 소득대체율이 40% 전후임을 고려하면 나머지 30~40%는 사적 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를 위해 TDF(Target Date Fund)를 추천한다. TDF는 투자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별 은퇴



시점에 맞춘 자동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알아서 운용해주는 펀드다. 은퇴가 아직 많이 남은 시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은퇴 시점에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은퇴 예상 시기만 정하면 된다. TDF의 펀드명 뒤에는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과 같은 숫자가 붙어 있다. 이 숫자는 가입자가 예상하는 은퇴 시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50년 은퇴할 예정이라면 'TDF 2050'을 선택하면 된다. '한국투자TDF아서펀드' 시리즈도 은퇴 예상 시기에 따라서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환노출형), 2050(환헤지형)으로 구분된다. 채권혼합형을 포함해 총 9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펀드는 미국 티로프라이스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협업해 만들었다. 티로프라이스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607명의 투자전문가가 약 9천623억달러(

약 1천124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다. 이 밖에 가입 가능 절세형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5년간 발생한 총 손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한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15~29세 이하인 청년은 통합소득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